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③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③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1~5] 화법

[1~3]

1.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찬성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1의 입론 마무리 부분에 제시된 ㉠은,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모습을 제시하며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는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은 입론 부분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물음은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2.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자료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반대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반대 2는 반대 신문의 첫 발화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찬성 1이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답한 것을 듣고 발언하는 부분이 [A]에 해당한다. 따라서 [A]에는 자료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말하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자료의 편파성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발화는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찬성 1이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②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점검하려는 <보기>에 제시된 점검 사항에 어긋나며 토론의 흐름에도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③ 자료의 조사 시기에 관한 질문은 <보기>에 제시된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발화이다. ④ 찬성 1이 입론에서 한 발언에서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3.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반대 1의 입론에서 주장에 대한 네 번째 근거로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제시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에서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논제에 부합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토론에서 찬성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론에서 찬성 측이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 근거는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하여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② 찬성 측 입론의 뒷부분에서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 근거는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하여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③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 1이 입론에서 ‘팬덤 활동의 배타성’이나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근거로 언급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⑤ 찬성 1은 반대 측 입론에 이은 반대 신문에서 반대 측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질문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라고 점검하고 있으므로 배심원이 토론 내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는 ‘중독’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여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배심원의 평가가 적절하다.

[4~5]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학생1’은 ‘학생2’가 홍보지 제작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일을 잘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학생1의 말에 동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② 고개를 젓는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며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이다. 이들은 모두 토요일에 연습하자는 ‘학생2’의 말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④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 수 있을까?’에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

로 볼 수 있다. ⑤ 무대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는 ‘학생1’의 말을 반복하여, 상대방이 앞서 한 말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A]에서 ‘학생2’는 ‘학생1’에게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1’은 이 요구를 수용해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 만드는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학생1’은 이를 위해 ‘학생2’에게 홍보지 만드는 일을 도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2’는 이 요구를 수용해 ‘학생1’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1’과 ‘학생2’는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연습 시간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학생1’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더 하자는 ‘학생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③ [A]에서는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A]와 [B] 모두 ‘학생1’과 ‘학생2’의 공동의 문제인 공연 연습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학생1’이 대화에서 제시된 안을 종합해 ‘수요일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자는 내용을 끝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B]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제시된 안을 종합하고 있지 않다.

[6~10] 작문

[6~8]

6.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다. ③의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의 초고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에 관한 내용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해 무관심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지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최근 국외의 ○○ 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가 우리나라로 공식 반환되었다.’라는 진술은 ‘국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 ② 3문단의 전체 내용은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을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④ 4문단의 ‘민간단체를 통한 기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진술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⑤ 5문단의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은 ‘기대 효과를 언급’하여 결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수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시한 후 초고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쓸 때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항의 표 왼쪽에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국외 문화재의 소재국가가 편중되어 있고, 정부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가 민간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소재가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 증가 폭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의 수량 증가 폭이 미미하다는 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는 사실 여부만 따진다면 셋 모두 적절하다. 하지만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의 바로 앞 문장을 고려할 때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국외 문화재가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이 좋지 않은 것과는 관련성이 적다. ㉡ 국외 문화재 환수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이 좋지 않은 것과는 관련성이 적다. ㉢ 민간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의 증가 폭이 정부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보다 크지 않은 것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수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래프의 내용은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의 수량이 적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8.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초고를 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문제 삼아,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금전적 기준(비용)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국외 문화재 환수 비용 내용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은 <보기>의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더 적절한 내용이다. ㉡ ‘문화재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제시’한다고 하여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국외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려면 환수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것보다 외국에 그냥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외 문화재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된다는 내용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문화재는 환수할 필요가 없다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문화재 환수는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여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 <보기>의 주장이

‘공공 기관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가하여’도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의 다음 문장에서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었다’고 밝혔듯이 필자는 ㉠의 의미를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 했었지만, 밑줄 친 ㉡ 다음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소개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과 ㉡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감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과 ㉡은 까치밥을 남겨 두시는 까닭을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이다.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른 생명들에게 겨울 날 힘이 되는 까치밥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인 ㉠과 ㉡에서 나눔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인자한 미소로 말씀하셨던 ㉠과 ㉡을 ‘이성적인 설명’,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의 앞에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렇게’로 지시하며 할머니에 대한 필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 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필자의 유년 체험, 뒷부분은 필자의 현재 상황이다.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글의 전개 방법에 해당한다. ② ㉢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다른 생명을 배려하셨던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용을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보다는 내용의 인과성을 드러내는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속어 사용에 해당한다. ④ 활짝 웃으시며 학생들의 성의를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고려할 때, ‘물리치다’의 의미가 담긴 ㉢보다는 남의 호의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사양하다’가 보다 적절한 어휘이다. ⑤ ㉢ 앞부분은 나눔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효 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는 문맥에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엿지만’을 [언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얹을수록’은 어간 ‘얹-’과 어미 ‘-을수록’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안즐쑤록]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수록’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품을 적에’를 [푸믈찌게]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ㄱ’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넓거든’을 [널꺼든]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얹을지라도’는 어간 ‘얹-’과 어미 ‘-을지라도’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얹블찌라도]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라도’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신깁네요’를 [신깁네요]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밧지도’를 [밧찌도]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비웃을지언정’은 어간 ‘비웃-’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비웃을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언정’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훑던’을 [훑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 [ㅌ]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적용

정답해설 : ‘ㄴ’ 뒤에 ‘-어’가 붙은 형태는 ‘내’로 줄어질 수 있으므로 ‘찌어라’는 ‘찌라’로 줄어질 수 있고 표기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찌라’는 틀린 표기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괴-’와 ‘-느냐’가 결합하는 것은 ‘ㄴ’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내’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③ ‘ㄴ’과 ‘-어’가 ‘내’로 줄어지는 것이므로 ‘꽤도’의 원래 말은 ‘죄어도’이고 이는 어간 ‘죄-’와 어미 ‘-어도’가 결합한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뵈-’와 ‘-어서’의 결합인 ‘뵈어서’는 ‘ㄴ’ 뒤에 ‘-어’가 오는 경우이므로 ‘뵈서’로 줄어질 수 있다.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하는 것은 ‘ㄴ’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내’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1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는 고체인 초콜릿이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된 상태를 진술한 문장이므로 이때의 ‘녹다’는 ‘녹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이 필수적이지 않다. 또한 ‘녹다㉢’의 뜻일 경우에는 ‘...에’ 성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순식간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해당 문장의 ‘녹다’는 ‘녹다㉢’일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굳다’는 ㉠, ㉡을 통해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녹다’는 ㉡을 통해 동사로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시멘트가 굳다’는 ‘굳다㉠㉡’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녹다㉠㉡’의 반의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녹다㉠㉡’의 예시에서 ‘엿이 녹다’가 제시되어 있다. ③ ‘굳다㉢’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을 굳게 달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녹다㉢㉣’은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와 같은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보기 2>에서 바뀐 부분은 세 군데이다. 첫째,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둘째,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가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각 지역에’처럼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로 쓰는 것은 ‘각 지역에 소통하고 답사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꾸며 준다는 뜻인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되었다. ‘답사하다’라는 동사가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정답 ㉣**

[오답 피하기] ① ㉣이 빠져 있다. ②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③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⑤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각 품사의 기능 파악, 부정 표현 파악, 문장의 종류 구분

정답해설 : ㉡은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말로서 대명사가 아닌 감탄사이다. 대명사로서의 ‘저기’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지만 이 예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끊은 게 아니고 끊어진 거’라고 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

위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일 경우에는 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③ ‘아차’라는 감탄사는 어떤 것, 특히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④ 어떤 이의 능력 부족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는 ‘못’을 사용한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⑤ “자세히 말해 볼래?”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말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문장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접 표현이라 한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은 ‘나랏’과 ‘을’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결합되었으므로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 ‘나라흫’로 써야 한다. ㉡은 ‘깊’과 ‘스’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되었으므로 ‘ㅎ’이 나타나지 않아 ‘깊’로 써야 한다. ㉢은 ‘얹’과 ‘과’의 결합이고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인데, ‘ㅎ’이 뒤따르는 ‘ㄱ’과 어울리면 ‘크’이 되므로 ‘안과’로 써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③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④ ㉠, ㉡, ㉢의 어형이 모두 잘못 제시되었다. ⑤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17~30] 독서

[17~20] 인문, ‘장자(莊子)의 물아일체 사상’

지문해설 : 이 글은 ‘물아일체’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호접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를 잊는다’는 것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기 위해 두 편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두 편의 일화는 각각 ‘참된 자아’를 잊으면 안 되며,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어야 한다는 장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장자는 자아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하는 ‘물아일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 사상

1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장자』의 일화 두 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된 물아일체 사상을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장자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이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글은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함으로써 자아가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행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니라 자아와 만물의 합일을 위한 것이다. ④ 3문단에서 정적(靜寂)은 분별 작용이 사라진 텅 빈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적 상태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경지이다. ⑤ 2문단에서 설명한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상태는 맹목적 욕망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하지만, 3문단에서 설명한 텅 빈 마음인 정적의 상태에서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의 두 가지 상태가 상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흘린 듯 쫓는 이야기는, 맹목적 욕망일 뿐인 마음이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바깥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언급된 이야기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린 경우인데, 4문단에서는 이 이야기가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3문단의 이야기는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5문단에서 장자는 이 경지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3문단에서 명경지수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비유한 말이므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의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므로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순자는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장자 식의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보기>의 순자는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자아를 잊고 장자의 ‘물아일체’, 즉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보기>의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편협한 자아를 잊어 마음속의 분별 작용이 사라져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자 사상이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보기>의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한다고 해서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출현(出現)하다’는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주로 시각적인 대상에 주로 사용된다. ㉠의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드러나다’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의 ‘발현하다’와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미혹(迷惑)되다’는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홀리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수용(受容)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받아들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탈피(脫皮)하다’는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벗어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초월(超越)하다’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뛰어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21~24] 사회,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체화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의 경우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에 주목한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대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주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백과 바우만의 견해

21.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의 개체화 현상과 관련하여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백의 경우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보며, 개체화된 개인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하여 위기에 대응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며, 개체화된 개인들이 위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개체화가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개체화 현상에 대한 백과 바우만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념을 비판하며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계와 의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개체화 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22.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2문단의 내용을 볼 때,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개인의 자율성이 약화되면 개체화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이 글의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족 해체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이 글의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조건이 현대인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이 글의 3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기에 개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고, 이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는 생각을 가졌음을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백의 경우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 보았는데, 이 위험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 시대’는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험에 대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위험 사회’라는 말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여 만들어낸 용어이다. ②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목하여 ‘액체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액체의 성격으로부터 이끌어 낸 말이다. ④ 백과 바우만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대를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⑤ 백과 바우만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2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방치(放置)’의 사전적 의미는 ‘내버려 둬.’이다. ‘쫓아내거나 몰아냄.’을 의미하는 단어는 ‘축출(逐出)’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연대(連帶)’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이다. ③ ‘표출(表出)’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나타냄’이다. ④ ‘전락(轉落)’사전적 의미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이다. ⑤ ‘몰두(沒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이다.

[25~26] 과학, ‘우주의 암흑 물질’

지문해설 : 이 글은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중 약 8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암흑 물질에 대한 개념은 1933년에 츠비키에 의해 제시되었다. 츠비키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질량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이후 1970년대에 루빈은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확증하였다. 루빈은 일반적으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 별의 공전 속력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속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관측 결과에 따라 중력을 보충해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였다. 나아가 2006년에는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된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통해 암흑 물질이 보통의 물질이나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제] 암흑 물질의 발견 과정과, 암흑 물질의 특징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츠비키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
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크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암흑 물질의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흑 물질은 은하들의 밝
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⑤의 진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과 거의 부
딛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암흑 물질의 양
이 보통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우주
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중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이 85%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을 통해 암흑 물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서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추가적인 중력은 공전 궤
도 안쪽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을 통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공전 속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하는 것은
보통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에서의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은 추가적인 중력과 상관없이 보통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흑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중심부와 별의 공전 궤도 사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한 곡선이고, B는 실
제 관측한 곡선이다. ② 계산된 A와 달리 실제 관측 결과가 B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계산에는 감안하지 않은 추가적인 중력 물질의 원천, 즉 '실종된 질량'인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③ 곡선 A는 암흑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
고 계산한 그래프이다. 반면 B는 실제 관측 결과를 반영한 그래프로, 중심부 밖에서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심부 밖에서는 별을 당기는 중력이 A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⑤ 암흑 물질을 배제한다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
터 멀리 떨어질수록 속력도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 속력이 줄지 않
고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속력이 감소해야 하
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멀리 떨어질수록 중심으로 당기는 중력이 더 크게 작
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즉 암흑 물질이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27~30] 사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으로 나눈 뒤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됨을 제시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은 피해자에게는 횡재이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횡재'를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 부과 방법으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4문단과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를 들고 있거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찬반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에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수단으로서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될 경우’ 기업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손해 배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벌금’은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제도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므로 ㉠은 형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벌금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키므로 ㉠이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에서 사용된 ‘이 제도’는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황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보기>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금에다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포함하여 받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윗글 2문단에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경우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 배상에다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규정이므로 <보기>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의 규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기>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다)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지문해설 : (가)는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면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입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장애물 때문인 것은 아닌지 연쇄법과 열거법을 통해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나)는 화자와 기러기 사이의 대화 형식을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입을 보러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와 달리, 화자는 입의 소식을 알 수가 없고 입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와 같이 이 시조는 화자와 기러기의 처지를 대비시켜 입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 입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다)는 전문 소리꾼 외에 정선의 뱃사공, 보부상 등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료함과 피로를 달래기 위해 가창되었고, 함께 이동하던 사람들도 따라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작품에 접합되면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는 변이 작용을 일으키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노래 속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선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여량리의 처녀와 유천리의 총각이 서로 사랑하였다. 여량리의 처녀는 싸릿골 동백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날마다 유천리로 건너가 총각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홍수가 저서 물을 못 건너게 되자 처녀가 이러한 상황을 원망하여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외기러기’는 화자의 말을 듣고 한양성에 잠깐 들러 화자의 처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입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없느냐는 물음은 단순히 시간의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입에 대해 묻는 형식을 통해서 입이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 하는 것이지, 입과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 제시된 공간은 입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한 공간이며, (나)에서 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된 공간인 ‘한양성’에 대해서는 그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D]에서는 변함없이 돌아오는 해와 달을,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 임과 대조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임이 떠나간 것을 자연 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고비나 고사리와 같이 만물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임이 늙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은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임이 떠나는 것을 해가 지는 것에 빗대어, 임의 떠남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③ 동생이 묻고 언니가 답하는 방식으로 시집살이로 인해 고단한 여성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⑤ 임이 오지 않는 것은 임에게 자신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 하여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33.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는 화자가 기러기에게 소망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는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 둘의 관계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무쇠’ → ‘성’, ‘성’ → ‘담’처럼 시어나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배치되고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집과 가구들이, (나)에서는 식재료로 이용하던 식물들이 시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은 ‘못 오던다’와 ‘성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의 ‘전혀여 주렴’은 외기러기를, (다)의 ‘건네 주게’는 뱃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것이다.

[34~36] 현대소설 - 최일남, ‘흐르는 북’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단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한 중산층 가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흐르는 북’은 이기적 삶의 세태를 배경으로 하면서 속물적 삶과 본원적 삶의 갈등을 예리하게 그려 내고 있다. 또한 할아버지(민익태), 아버지(민대찬), 손자(민성규)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세속적인 가치를 열렬히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성규’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성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인간이 잃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며, 현대인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에 대한 소설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모색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서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편견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㉕은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며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㉖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㉗을 살펴보면,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㉘의 앞 발화는 '성규'의 말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 자신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구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은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 노인'의 소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로 볼 수 있다. ② '날씬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연관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③ ‘역사의 의미’란 ‘전 세대끼리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화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3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37~4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지문해설 : 중종 때의 실존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도술에 능한 전우치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부패한 정치와 당쟁을 풍자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등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필사본 이외에 여러 판본이 전해지는데, 주된 내용은 전우치가 도사를 만나 선도(仙道)를 배워 탐관오리들을 혼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등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생고를 고발하는 등 사회의식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으나, 지나치게 도술에 의존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제시문에서도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주제] 전우치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부패하고 무능력한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임금은 전우치가 도적의 형세를 살피고 그들을 토벌할 계획을 정하겠다고 아뢰자 크게 기뻐하며 어주와 인검을 하사하고 있다. 임금은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그를 격려하는 의도로 어주와 인검을 하사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④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집장과 나졸이 매를 한 대 친 후 팔이 아파 치지 못하는 사이에 전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⑤ 전우치는 마음속으로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전우치는 역모의 누명을 쓰게 되자 임금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를 내어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임금이 속아 넘어가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전우치의 원혼에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하여 결박을 풀어 주는 것이므로, ㉠과 ㉡은 전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함경도 가달산의 도적들이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전우치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임금 입장에서 도적을 토벌할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임금이 전우치가 역도로 거론되자 화를 내는 것으로 사건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임금이 분노하여 임금과 전우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 사이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의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혼자 도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우치가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② 전우치는 엄준 토벌 삽화에서 솔개로 변신하고, 진언을 외워 수리(독수리)가 상을 걷어치우게 하고 광풍을 일으켜 차일과 병풍을 날아가게 만들고 있고, 역모 누명 삽화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도술을 사용한다는 연결 고리를 통해 전우치의 행적이 펼쳐지고 있다. ⑤ 전우치가 솔개로 변하거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부

각하며 신비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0.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④는 엄준과 그의 부하들이 전우치의 도술로 인해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혼비백산(魂飛魄散)’이 가장 어울린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41~43] 현대시 - (가) 고은, ‘성묘’ / (나)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지문해설 : (가)는 분단에 대한 참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전국을 돌며 소금을 팔았다. 그런 아버지가 다시 남북을 돌면서 소금을 팔 수 있도록 남북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주제] 조국 분단의 한과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나)는 산문의 형태의 시로, ‘외할머니네 집 뒤편 ~ 먹오뎡빚 툇마루’라는 공간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 그 툇마루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화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는 곳이다.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화자에게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보호로 위안과 치유의 공간으로 가슴 속에 남게 된다. 또한 툇마루를 통해 화자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질책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외할머니에 대한 신뢰도 보이고 있다.

[주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4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 ‘하얀 소금’ 등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도 ‘먹오뎡빚 툇마루’에서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행,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시다.’와 21행 이후의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이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변주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으나, (나)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가), (나)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③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간 인물이므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가)는 동화적 분위기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에는 아버지가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남북통일)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로 감상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떠돌던 공간인 것은 맞지만, (가)의 화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사실을 슬퍼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화자에게 ㉢은 빼앗긴 국토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남북분단의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은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이 땅’을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화자가 가업을 잇는 것과는 무관하다.

4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집 뒤편’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숨을 바로 하’던 공간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위안을 바탕으로 현재의 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 뒤편’이 유년 시절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화자와 유년 시절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만들어진 ‘거울’은 ‘뒷마루’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하는 것이 맞다. ③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찾아간 곳이 ‘뒷마루’이고 거기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장소이므로 위안의 경험과 관련된다. ④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⑤ 거울처럼 반짝이는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으므로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

[44~45] 극 - 이강백, ‘결혼’

지문해설 :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가 하면,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거나, 극 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공연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한다면 정해진 시간동안 빌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죽어서 이별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는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의 ‘회중시계’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도 물건을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은 ‘구둣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동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 앞부분의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의 하인은 대사가 없는 인물로 소통을 거부한 채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그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② 하인은 무대에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감을 고조시키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한

다. ③ <보기>에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 되어 있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보여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남자가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은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